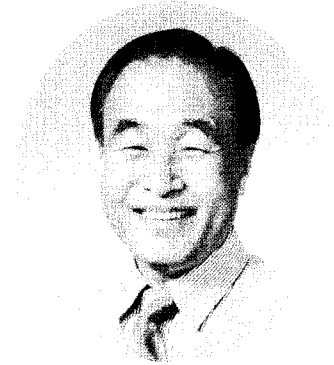


검은 대륙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 건 석 서울대 명예교수
아시아 양봉대회 한국대표



남아프리카
Durban
국제 컨벤
션 센터에
서 제23차
세계 곤충
학회가 개

최되었습니다. 홍콩에 이틀 동안 머물고 7월 5일 밤 요하네스버그 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다행히 서울을 떠나 홍콩 국제공항에 도착한 한국에서 온 여러 분의 교수님과 대학원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홍콩 국제공항에서 13시간 날아가 7월 6일 이른 아침에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바로 국내선 비행기를 갈아탄 뒤 한 시간 남짓 비행 끝에 최종 목적지인 Durban 에 무사히 내렸습니다.

Durban 에 내리기 전에 바라본 아프리카 대

륙은 검은 진주처럼 빛나는 노랗게 물든 밭과 녹색의 숲들이 이방인을 맞아주는 듯 손짓을 하고 있었으며 한참 동안 이 광경을 보는 동안 가슴 설레게 하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붉은 색의 불타는 사막도 있었고, 노랗게 웃을 입은 사탕수수밭의 물결은 마치 유채꽃이 만발한 것처럼 황금색 이었습니다. 또한 여기 저기에 반짝이는 작은 호수는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사막이랑, 사탕수수밭이랑, 푸르게 자라는 아카시아(열대지역에만 자라는 밀원 식물)랑, 은빛 반짝이는 호수들은 조화로운



그림을 보는 듯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점점 착륙 하게 될 도시가 발아래 펼쳐지면서 전혀 새로운 아프

리카의 문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혼선이 생겨났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백인만이 사는 집들이 여유 있게 자리 잡은 잘 정돈된 주거 마을과 반듯한 네모 꼴 모양의 하얀 원주민들만의 다닥다닥 맞대고 선 집들이 너무 대조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사회 질서의 결과이기도 합니다만, 그렇다 치더라도 이들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세계평화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는 신비로운 아프리카의 문화를 곁 훑기식으로 눈으로만 열심히 느끼기로 하였습니다.

7월 7일은 월요일,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쌀쌀한 기후에 높은 하늘은 너무나 맑았습니다. 이날 아침은 같은 호텔에 묵은 서울대학교 이승환 교수와 조찬을 같이 하며 아프리카의 궁금한 문제들에 관해 많은 대화가 있었으며,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학술회의 때는 터키에서 온 학자와 아카시잎흑파리에 관해서 견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



행히 터키에는 아카시나무를 공격하는 흑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후 13시30분부터 17시까지 Durban 서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1000

개의 언덕이 있는 계곡으로 탐사를 떠났습니다. 가는 동안 차창 밖에는 유카립투스, 피나무와 아카시아 나무를 흔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양봉역사는 매우 오래된 듯합니다. 가장 조직이 큰 양봉협회로는 남아프리카 양봉산업 연합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부양봉연합 - SBA(Southern Beekeeping Association)' 가 가오텡거주에 본부를 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남아프리카

- 2008년 양봉 보험액/불입액 -

[단위:R(Rands), 2008년 기준]

보험액(insurance)	연 불입액(annual premium)
250,000	500
1,000,000	850
2,000,000	1,100
3,000,000	1,250
4,000,000	1,400
5,000,000	1,600
6,000,000	1,700

꿀벌산업기구 - SABIO(South African Bee Industry Organization www.sabio.org.za)는 행정도시인 프리토리아에 있었습니다. 또한 동부지역에는 '동부양봉가협회'가 있었는데 주로 동부지역의 양봉인과 양봉산업 관리에 매진한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남아프리카꿀벌산업기구의 운영 실태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꿀벌을 키우려면 해당 지역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고 등록 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의 등록비를 보면 연회비는 R150으로 결정이 되어있으며 봉군당

R1.50을 지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서류인 'SABIO Code 501-045 WLCLADP' 따르면 본인이 신고 하는 날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것이 등록에 관련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1월 3일에 등록을 한다면 2009년 2월 28일까지 유효 합니다.

또한 양봉을 하다가 보면 생각지도 않은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꿀벌 산업이 보험에 가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Van der Laan

보험 중개인' 이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험액과 연 불입액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세기의 남아프리카 양봉의 그림자]

이미 오래전부터 꿀벌은 인류와 호흡을 같이 하며 진화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벌꿀이나 밀랍, 그리고 꿀벌의 활동을 배경으로 한 민속학, 그리고 원시민족들 간의 문화의 한 부분을 차지해 왔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꿀벌 집이나 벌꿀을 수확하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서 바위에 페인팅 되어 발견된 사례를 아프리카와 스페인 일부지역에서 이미 밝혀진 일이 있습니다. 특히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바위의 예술이 페인팅 그림으로 알려진 것은 San Bushman 의 역사에서 확연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암각그림은 후기습기시대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7세기까지는 유럽 사람들에게 의해서 가축이나 꿀벌들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고 미국과 호주대륙에 있어서는 그 당시 꿀벌에 대한 기록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침이 없는 꿀벌인 꼬마꿀벌들은 원주민들이 꿀을 따기 위해서 이 벌을 이용한 흔적이 여러 곳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특히 중앙아메리카의 마야문화에서 볼 수 있었고, 멕시코의 Aztec 문화에서도 꼬마 꿀벌이 꿀을 수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양봉자문 위원회(AAC)는 1972년 Bing박사에 의해서 제안이 되어 농무부 산하의 'PPRI'에 소속되어 있었습니

다. 남아프리카연합양봉가협회는 농림부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 PPRI에 자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양봉 기술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현재 농업 연구위원회

가 1991년부터 이어받아 활동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서는 Cape 침입자벌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름 우기

- 남아공의 양봉산업(SABIO) -

	양봉가수	양봉인당/봉군수	직업양봉가
직업양봉가	20	1,000-7,000	37,000
상업양봉가	150	100-1,000	43,000
취미	2,000	1-100	26,000
배우는 사람	88그룹	5-500	

* 추정봉군수 : 90,000 - 110,000

철에는 많이 나타나는 아프리카화 꿀벌과 비슷한 생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1992년 2월 행정도시 프리토리아 부근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농무부는 이러한 벌을 퇴치하기 위해서 당시 5만의 이동양봉봉군을 살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어느 정도 잠잠해진 상태이지만 아직도 Cape 벌의 침입으로 국가 전체로 볼 때 약 20%정도의 벌꿀 생산에 차질이 일고 있습니다.

Cape벌이란 *Apis mellifera sapiens sapiens* var. *capensis*로 명명되고 있으며 거의 자매종인 *Apis mellifera scutellata*보다는 색깔이 어두운 편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Bushman이 아주 좋아했던 벌이라고 하며 이보다 더욱 검은색 계통은 'Crants 꿀벌'이라고 불렀습니다. Cape벌이 있는 지역은 자연스럽게 *capensis*와 *scutellata*의 분포대가

만들어 졌습니다. 인류의 최초 탄생지를 과학자들은 동아프리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더 남쪽의 바다 및 수백 피트 아래의 Aguihas 언덕이었을 것입니다. 여기는 약 10만 년 전에는 육지였다가 점점 바다 속으로 가라앉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기초가 단단한 양봉산업 구조]

1998년에 수정된 농업 해충법은 강제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꿀벌의 도난, 짠 수입꿀, 꿀벌의 질병, *Capensis*벌 문제가 40여 년간 방치되어 온 것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벌꿀의 생산규모로 보면 아프리카는 전 세계의 생산량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에티오피아만 하더라도 2006년 41,000톤의 꿀을 생산 하

였고, 탄자니아는 28,000톤, 케냐는 25,000톤을 생산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생산되는 꿀은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참고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양봉실태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남아프리카의 양봉산업은 규모는 기업형으로 크지는 않지만 양봉산물의 품질관리 면에서는 정부의 지도와 개입으로 법규가 잘 활용되고 있으며 양봉 관리 면에서는 앞서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규모가 크면 생산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면에서 보면 기대되고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넓은 대륙과 풍부한 밀원 자원은 아프리카의 양봉 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연구와 지도에 있어서 보다 과학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류의 꿀벌이 분포하나요?]

현재 알려진 아프리카 대륙과 마다가스칼 섬에 분포하는 꿀벌의 품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capensis*, *scutellata*, *litorea*, *unicolor*, *adansonii*, *monticola*, *yemenitica*, *lamarckii*, *sahariensis*, *inermis*, 이상 10종이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capensis*는 서남부 지방의 겨울우림지대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monticola*종은 동아프리카의 해발 200미터 산악지역에 자리 잡고 살아갑니다. 마다가스칼 섬에는 *unicolor*종이 매우 평범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마다가스칼 섬은 아프리카 대륙과 동떨어져 있으며 아주 옛날에는 호주와 매우 가까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호에는 아프리카 고유종이면서 때로는 Cape벌로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품종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도 지역이 넓기 때문에 지역별로 양봉의 실태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기구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일은 아프리카 양봉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밀원식물에 대한 내용도 다음호에 같이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남아프리카 양봉산업의 연계조직도를 살펴보자면,

www.ruperishoney.co.za/

www.apitherapy.co.za/

www.thepropolispeople.co.za/

www.honeysucklehoney.com/

www.apiculture.co.za/

www.beekeeping.com

등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정보 활용이 가능합니다.

해외 양봉 탐사기를 시작하며 바쁜 시간을 내주시고 아름다운 사진을 제공해 주셨던 Sue M McConnell 여사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지난 호까지 제공해 주셨던 모든 사진은 여사님께서 직접 촬영하여 제공해 주셨으며, 앞으로도 귀중한 사진 자료를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와 조언을 해주셨던 SABIO 사무총장 Hans Blokker씨와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Crispina Jackson씨에게 감사의 뜻을 함께 전합니다.